

대구주보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교리 주간) 2016.12.4.(가해) 제2028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월배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2)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 교회가 정한 인권 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예민하게 읽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제1독서 이사 11,1-10

제2독서 로마 15,4-9

복음 마태 3,1-12.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화답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냉담자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인도하겠습니다.”



회개(悔改), 바꾸고 고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최성준 이나시오 신부 | 교구 문화홍보실장

날이 몹시 춥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밤은 더 길어졌고 어둠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더 밝게 보이고,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느낄 때 희망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는 것ですよ.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어둠에 쌓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스럽다 해도 밝고 따스한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곧 오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待臨)의 시기입니다.

“회개하여라.”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첫마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회개(悔改)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고치려는(改)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이나 행동을 바꾸고 고치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회개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자(孔子)도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를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서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행동을 잘 살펴 무엇이 잘못인지 성찰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고쳐 나가는 노력이 따를 때, 올바르게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머리로는 잘 알고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며 뜨겁게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도 직접 손으로 실천하고 발로 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더 나아가 손발로 잘못을 고쳐 나가는 실천이 뒤따라야만 참된 회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어 습관처럼 저지르는 잘못이나 악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이며, 다가올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날이 어둡고 춥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겨울을 나기는 참으로 힘에 겨울 것입니다. 인권 주일이기도 한 대림 2주일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다립시다.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화답송) **필문**

2016년 제35회 인권 주일, 제6회 사회교리 주간 담화문(요약)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며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분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 주일’로 정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신비로 더욱 분명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성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실태를 되돌아보면 깊은 탄식과 반성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테러방지법 통과,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선종, 소외된 노동자와 실업자의 삶, 작년 말 졸속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진상 규명을 염원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외침이 외면되어 왔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돈과 권력을 인간보다 우위에 놓는 우상숭배와 ‘나의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는 극심한 개인주의(『복음의 기쁨』, 2항)가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의 회개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대림 제2주간’은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사회교리는 복음화 직무의 필수적인 한 부분(『간추린 사회교리』, 66항)으로서 이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은 교회의 봉사 직무의 핵심(『간추린 사회교리』, 67항)입니다. 사회교리는 참된 교도권으로, 신자들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80항). 그러나 사회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의 예언자적 수행을 방해하고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왜곡하여 반대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교리 문헌들이 교회 전역에서 읽히고 토론되며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국내외 상황이 어두워 보입니다만, 하느님께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결국 놀라운 섭리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잃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 마음속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에 오십니다. 구원의 봉사자인 교회는 추상적 차원이나 단지 영적 차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60항).

하느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시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마태 25,31-46)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한반도와 온 세상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의 은총이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2016년 12월 4일 인권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 흥 식 주교



나눔, 감사, 신뢰 vs 독식, 쾌락

이준영 리노 신부 | 죽도본당 보좌

2008년 즈음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텔레비전에서 시작된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은 이제 ‘쿡방(요리하는 방송)’으로 한 단계 진화하면서 인터넷 방송 뿐 아니라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에서까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식(食)”이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먹방이 시작되고 인기를 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요리에 대한 노하우와 레시피를 제공하고 음식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는 점에서 쿡방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방과 쿡방의 포인트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먹방과 쿡방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상식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양을 꾸역꾸역 먹어 치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이 서로 더 빨리, 더 많이 먹으려는 모습은 맛있는 음식을 혼자 독식해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또 요리된 음식을 맛보고 난 뒤 과도하게 만족한 표정과 맛을 황홀하게 묘사하는 표현은 시청자들의 오감을 과하게 자극할 뿐 아니라 음식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음식은 독식과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가난한 사람, 굶고 있는 사람과의 나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정만도 오천 명이 넘는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다 굶게 되었을 때 그 군중 속에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양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선뜻 내어놓았고, 이 나눔과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의 감사가 만나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은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이 있어났습니다.

또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음식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때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 사람들은 맛있게 양식을 먹고, 내일도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해 더 많이 챙긴 사람들은 벌레가 생겨 썩어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시선에서 음식은 당신 백성을 살리시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에 넘치도록 많은 양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하시며 음식을 통해 그날 충분한 양식을 주시고 다음날에 또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방’과 ‘쿡방’ 그리고 음식을 접하게 되겠지요? 그때마다 독식과 쾌락이 아니라 나눔과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시선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열두 사도 이야기

유다의 자리를 채운 하느님의 선물, 마티아 사도

열두 사도들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가 아니라 유다 이스가리옷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도들이 뽑은 분이 바로 마티아 사도입니다. 열두 사도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마티아 사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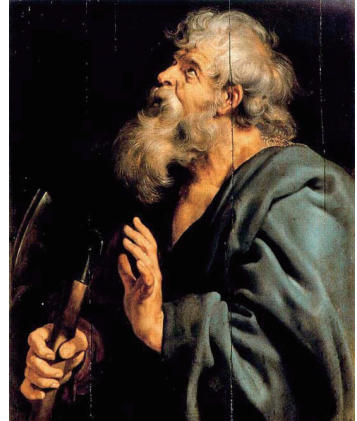
사도행전 1장에는 당시 성인께서 사도로 뽑히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뽑으신 열두 사도단에 유다의 배반으로 공석이 생기자 베드로 사도께서는 백스무 명 가량 되는 교우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유다를 대신할 열두 사도단의 마지막 사도를 뽑고자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사도 1,21-22)

성경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바르사빠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이 선별되었는데, 사도들은 기도 후 구약의 풍습대로 제비뽑기를 통해 마티아 성인을 사도로 선택했습니다. 마티아 사도는 비록 처음부터 예수님의 열두 사도에 속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목격하신 분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파견하신 일흔두 명의 제자(루카 10,1-2 참조) 가운데 한 분이 라고도 합니다.

열한 제자들과 함께 사도직을 맡게 된 마티아 사도는 유다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나중에는 콜키스(오늘날 흑해 동부 그루지아 일대)에서 선교하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훗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이신 헬레나 성녀에 의해 사도의 유해가 로마로 옮겨졌다가 황제에 의해 다시 독일의 국경 도시 트리어(Trier)로 이장되었습니다. 현재도 트리어는 마티아 사도를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티아 사도는 도끼 혹은 미늘창으로 살해되어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초상화는 십자가를 들거나 미늘창(도끼와 창을 합친 무기)을 들고 있는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축일은 5월 14일입니다. 예전에 부르던 ‘마지아’라는 세례명은 마티아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마티아라는 이름은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마티티아(Mattithiah)에서 유래되었으며 ‘하느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루벤스 '사도 성 마티아',
17세기, 프라도 미술관(마드리드)

교구 행사

■ 불로성당 25주년 기념 미사 및 견진성사



불로성당 설립 25주년을 맞아 성전 새단장 축복식이 11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 미사 중에 99명의 신자들의 견진성사도 있었다.

■ 이형우 아빠스 장례미사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이형우(시몬 베드로) 아빠스께서 지난 11월 27일(일) 선종하셨다. 장례미사는 11월 29일(화) 오후 2시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신 영세자 ·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서



교사용 / 15,000원
180*255 / 116쪽

신자용 / 12,000원
180*255 / 80쪽

하느님과 함께 cum cum

여섯 명의 새 사제가 그 답을 찾아가며 만든 교리서!

구입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선한목자연구소 (053)660-5100
인터넷 분도북, 교회서점

2017 신앙다이아러리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
2017년도 대구대교구 신앙다이아리가 출시됩니다.

판매가: 12,000원 /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다시 한 번 곰곰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2월 5일(월) 10:30 범어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5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2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미사	12월 7일(수) 19:00 근화여고경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10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시: 12.10(토) 14:00

장소: 남대영기념관

대상: 중3~30세 미만 미혼 남성

문의: (010)3894-133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2.11(일) 14:00, 부산 본원

일시, 장소는 전화상담 후 정할 수 있음

대상: 선교 수도생활 관심 미혼 여성

문의: 루카 수녀, (010)9319-1690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2.11(일) 14: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경당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서울교구 성마리아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12.11(일) 14:00

장소: 서울 성수동 양성센터

대상: 재속회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제3회와는 다름)

문의: (010)8707-3488 / (010)9437-5903

아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제주도 눈꽃 피정

기간: 1.4.(수)~6(금) 선착순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http://www.sanimal.org>

2박 3일 수도생활 체험 피정

기간: 12.29(목) 16:00~31(토) 13:3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참가비: 15만원, 농협 301-0087-

0776-61 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신청: (054)971-0722 / (010)9877-4739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2.17(토) 11:00~18(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원(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음성꽃동네, (010)5490-5345

교육 | 모집 | 기타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2.9(금) 17:30~11(일)

4박 5일: 12.12(월) 14:00~16(금)

8박 9일: 12.26(월) 14:00~1.3(화)

이나시오: 12.26(월) 14:00~1.3(화)

문의: (031)946-2337~8

산위의마을 꼬핀스쿨(중등자유학교) 모집

대상: 꼬핀스쿨(중학생) 5명

생활유학(초3~초6) 4명

위치: 충북 단양 / 문의: 서울대교구

산위의마을, (010)3643-2144

제49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1.6~2.12(3, 5주 선택)

대·일반: 1.2~2.12(6주, 장기 선택)

아일랜드·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후원: 카푸친작은형제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비용: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신부 인솔)

주관: 일본 가고시마교구

문의: (010)3005-9028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기 학생 모집

기간: 단기, 장기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약속의 땅
이스라엘 · 요르단 성지순례

2017년 4월 22일(토) 출발
(11박 12일)

T. (053)253-3399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필리아)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한투어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성모발현지 성지순례
(1월31일 출발확정)

☎ 053-427-7090
안요한, 김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발아정형외과
발아플랜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대장내시경
진장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www.piumclinic.co.kr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성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행사 | 모임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6회 7080 밥콘서트

일시: 12.10(토) 17:00

12.11(일) 14:00, 17: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 1만원

문의: (010)9577-7819 / (010)4509-7016

교육 | 모집

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

기간: 1.10(화)~13(금) / 마감: 1.6(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37

http://cafe.daum.net/teenstar85

12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2.10(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행복을 찾아가는 길

강사: 신달자(엘리사벳)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 특강

일시: 12월 매주(금) 10:00~11:15

장소: 계산성당 1교리실

출연: 배은주(이사악) 수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50

2017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4(월)~2017.2.10(금)

과목: 성경,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공관복음서 통으로 읽기

일시: 12.17(토) 9:30~17:30

장소: 바오로딸서원 2층(동성로)

내용: 공관복음(마태오·마르코·루카) 통독

대상: 청년 / 5천원(중식)

문의: 김스페란자 수녀, (010)2503-5185

무학연수원 중고등부 겨울 신앙 학교

기간: 1.3(화)~5(목) / 1.6(금)~8(일)

1.10(화)~12(목) / 1.13(금)~15(일)

대상: 초등6~고등2 / 참가비: 1인 8만원

장소: 무학연수원 / 문의: (054)932-0620

자비를 실천하는 복사, 전례캠프

기간: 1.9(월)~10(화) / 1.11(수)~12(목)

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주최: 살레시오수녀회

문의: (062)373-0942 / (010)8621-0940

28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모집

출발: 12.31(토) 4주, 8주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자: 1.3(화) 스페인, 포르투갈

경비: 390만원(11박 12일)

일자: 1.12(목) 이스라엘, 이태리

경비: 430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대상: 만15~30세 남자, 1년(기계가공)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고

검반운영, 인성교육, 교육기속비무료,

수당지급, 취업알선, 방통고편입학지도,

면접전형 / 문의: (02)828-3600

2017년 맨발가르멜재속회원 모집

모집마감: 12.31(토)

첫째주 주일탐: (010)2686-3282

첫째주 월요일탐: (010)6655-0051

넷째주 주일탐: (010)2518-4008

넷째주 월요일탐: (010)8594-2655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지영, 박상미(미카엘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통합의료진총원

전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진료 일반외과, 혈액종양내과, 재활의학과
과목 마취통증의학과, 한방내과
병원장 손 기 철(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대표전화 053)670-60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일 (아 네 스)



건강방산
자연산전산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명미 카타리나

이태도 가브리엘, 윤명미 카타리나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진료 분야: 아토피 | 알레르기 | 사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암 | 여드름 | 흉터 | 기미 | 잡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온빌딩 3층 (구.달성군청)

1호선 성암역 3번출구 T.053) 651-8800

치질수술 내시경 건강검진 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www.hangmuns.com

늘시원한치질병원
신경통 959-7175

병원장 노성균
의사직 아우구스티노
대우아파트앞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